

정보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 해소

전북교육청, 도내 초·중·고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인터넷통신비 지원
1가구당 1회선, 월 1만7600원 지원...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상시 신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도내 초·중·고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 사업은 정보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기

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2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북한이탈주민·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다.

해당자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1가구당 1회선 지원되며, 형제자매 중 최연소자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월 1만7,600원이며, 지원 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약 8,862명에게 18억7,100여만 원의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통해 해당 가구에는 교육비용 절감을, 학생들에게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 복지 사업을 추진해 공교육의 책무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3일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수퍼스타홀에서 하계 농촌봉사활동 발대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상생 실천... 전주대, 하계 농촌봉사활동 발대식

27일까지 고창·부안 일대에서 봉사활동 진행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3일 학생회관 수퍼스타홀에서 하계 농촌봉사활동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촌봉사활동은 총학생회, 중앙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학생회를 포함한 360여명의 재학생들이 참여,

23~27일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고창 및 부안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날 발대식은 신숙경 학생취업처장의 격려사와 한병수 선교봉사처장의 대표 지도, 인권센터의 성·인권 교육, 총학생회장의 안전 교육, 사회봉사 오리엔테이션 순으로 이뤄졌다.

특히, 폭염 대비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휴식,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 등 실질적인 안전 교육을 최우선의 가치로 뒀다. 신숙경 학생취업처장은 “하계 농촌봉사활동을 통해 학생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고 봉사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교사 교육활동 보호·교권 신장 헌신 공로 인정

전북교사노조, 유재복 교권보호관·최성민 교권전담변호사에 감사패 전달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지난 20일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유재복 교권보호관과 최성민 교권전담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 지역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신장에 헌신해 온 두 인물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유재복 교권보호관은 전국 최초로 임명된 교권보호관으로 2023년 전북교육청이 학생인권센터를 교육인권센터로 명칭 변경한 이후 교권 강화 정책과 제도 개선을 주도해왔다. 특히 학교안전공제회의 교원보호공제 범위와 한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최성민 교권전담변호사는 2024년부터 현재까지 약 140여 건의 교권 침해 사건을 처리하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해 왔다. 현장 동행과 신속한 법률 지원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정재석 위원장을 비롯한 전북교사노조 관계자들과 전북교육인권센터 소속 장학사와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잦은 전북에서 두 분의 노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20일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유재복 교권보호관과 최성민 교권전담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력은 교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유재복 보호관은 “교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그 노력을 돌아보고 이어갈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최성민 변호사는 “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이 감사로 돌아와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북교사노조 관계자는 “전북교육인권센터는 법적 대응을 넘어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무엇보다 교사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보호 장치와 제도적 기반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교사 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보건의료 역량 강화 교육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21일 보건의료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지역 청년 48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분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건의료분야로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실무 지식과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기획됐다. 주요 과정으로는 AHA BLS provider 과정으로 △성인 기본 소생술 △자동

제세동기 및 백마스크 장비 사용 △소아/영아 기본소생술 △기도폐쇄 처치 등이 있다. 교육 수료 후 평가를 통해 AHA(미국심장협회) 인증 수료증이 발급됐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지무와 연관된 자격증을 찾던 중 심폐소생술 교육을 알게 됐고, 학교의 지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습경험과 수료증까지 받을 수 있



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흡연예방 금연실천 공모 수상작 발표

총 482편 응모 95편 선정... 25일부터 전북교육청서 전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5년 흡연예방 금연실천 공모전' 수상작 95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482개 작품이 접수됐다. 심사는 독창성 및 창의성, 표현력 및 완성도, 내용의 충실도, 작품의 활용 가능성에 따라 2단계 과정으로 엄정하게 진행했다.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로는 △소초 부문 전주교대부설초 박라엘의 학부모 2인 △포스터 초등부 부문 군산월명초 박정원 학생 △포스터 중·고등부 부문 이라남성영고 박지혜 학생 △슬로진 부문 전주서일초 송예진 학생 △캐릭터 부문 장수중 채호림 학생이 각각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교육감상과 함께 소정의 부상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오는 25일부터 3주간



2025년 '흡연예방 금연실천 공모전' 캐릭터 부문 대상 수상작.

전북교육청 별관(창조나라) 통로에 전시될 예정이다.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금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금연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언어 발달 지연 유아 조기 지원

전북교육청, '톡톡(Talk Talk)! 말해드림(Dream)' 추진
도내 공사립유치원·어린이집 전체로 지원대상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언어 발달 지연 유아를 조기에 발견·지원하는 '톡톡(Talk Talk)! 말해드림(Dream)'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노출 연령 하향화 및 사용 시간 증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전반적인 영유아 언어 발달 지연 사례가 이어져 조기 개입으로 의사소통 능력 발달을 돕기 위한 것이다. 특히 유보통합의 체감도를 높이고, 모든 유아를 보편 지원하기 위해 도내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누리과정 운영 기관) 전체로 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유아 종합 심리검사 진단 △언어 발달 증진 프로그램

운영 △언어 교재·교구 구입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7일 까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해 전북교육청 유초등특수교육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다문화가정, 이주배경 유아, 언어 발달 지연 유아가 많은 기관을 우선 선정하며, 참여 기관 규모에 따라 기관당 100만~300만원 내외의 예산도 지원된다. 김운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언어 발달 지연 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으로 안정적 발달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도내 모든 유아들이 정상적인 언어 발달을 통해 기초 학력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비등 열전달 매커니즘 규명 차세대 냉각기술 발전 기여

전북대 남현택 박사, 기계학회 우수박사학위논문상 수상받아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남현택 박사(기계공학, 지도교수 이승로)가 최근 열린 2025년 대한기계학회 에너지 및 동력공학부문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박사학위논문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 상은 대한기계학회가 학문적 기여와 논문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 중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이룬 이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남 박사의 수상 논문은 '마이크로필라 구조물의 재흡윤 유동 및 풀/강제대류 비등 열전달 특성'에 관한 연구로, 마이크로구조 표면에서의 열·유동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차세대 냉각시스템에서 비등 열전달 성능을 향상시키는 매커니즘을 규명했다. 특히 2상 유동 환경에서 고해상도 열·유동 분포를 정밀 측정하는 기법을 국내 최초로 제시한 점이 주목을 받았다. 이 연구는 향후 고 집적 전자기기, 친환경 차량,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 등에서 핵심이 되는 냉각기술의 원천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앞서 남 박사는 박사과정 동안 열전달 분야에서 SCIE급 논문 5편을 제1저자로 게재했으며, 이 중 3편은 JCR 상위 10% 이내의 저널에 발표되는 등 탁월한 연구 역량을 입증했다. 또한 공동저자로도 3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2월 전북대 학위수여식에서 박사학위 수여자 180명 중 대표로 '총장상(우수연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장은성 기자

학교별 특색있는 인성교육 운영사례 공유

전북교육청, 인성교육 역량강화·중점학교 성과 나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 창조나라 시청각실에서 '2025년 상반기 인성교육 역량강화 및 중점학교 성과 나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인성교육 중점학교 실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북 인성교육 3대 핵심덕목과 8개 하위요소를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별 특색있는 인성교육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동욱 회복적 정의교육센터 강사가 '회복적 정의를 통한 건강한 학교공동체 문화 형성'이라는 강의를 통해 회복적 정의의 가치를 학교 현장의 눈높이

이에 맞게 설명했다. 또한 전주인봉초등학교, 부안중학교, 전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 중점학교 실천 사례를 발표했다. 부안중학교에서는 인성교육 중점학교 운영을 통해 자기관리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는 실천 과정 등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였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올해 1학교 1인성브랜드 정책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에 노력해왔다”면서 “바른 인성을 기반으로 실력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이차전지제조성능평가사 자격증 특별반 운영

전주비전대, 군장대 등 전북권 3개 전문대학과 공동으로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최근 전북권 3개 전문대학과 공동으로 이차전지제조성능평가사 자격증 특별반을 운영했다. 전주비전대, 군장대, 전주기전대가 함께 한 이번 교육은 이차전지 분야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전주비전대학교 성실관 신산업융합실습실에서 진행된 특별반에는 각 대학에서 교수진과 재학생이 참여하고, 산업체 전문가도 실습 강사로 참여해 현장 중심의 자격증 교육이 이뤄졌다. 참여 학생은 “다른 대학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으며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경험이 인산 깊었다”며 “앞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데 있어 큰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차전지신산업전도전문대학사업단 박효식 단장(전주비전대 교수)은 “이번 자격증 특별반은 전북권 전문대학들이 신산업 분야에서 힘을 모은 협업 모델로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이차전지 관련 교육을 더욱 확대해 재학생들이 관련 분야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